

B1~2 불교중앙박물관
사찰 성보박물관

B3~5 특별한
템플스테이

B6~7 불서 12선

B10~11 그 섬 그 절
그 산 그 절

성보 문화재와 대화하며 더위 식히자

불교중앙박물관 도심 문화의 보고 ...석가탑 사리장엄구 등 성보 문화재 740점 보유

한여름의 절정 8월이 왔다. 굳이 먼 바다와 산을 찾지 않더라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박물관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유물들은 옛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말해준다. 불교문화재 성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띤 유물들은 우리 불교의 변천사와 부처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이야기해준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 위치한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은 불교문화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공간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도 진행돼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여름 나들이를 떠나보자.

불교중앙박물관은 도심 속에서 불교미술을 접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조계사는 물론 인사동 경복궁 삼정동과 이어지면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궁극해하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찾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로 만나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팔상도'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전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다양한 불교유물이 상설 전시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획전이 마련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전시중인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기획전은 9월 15일까지 한달 연장 전시가 결정되었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계사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것은 물론 1930년대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상량유물이 최초로 공개돼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의 창건 △조계사 대웅전을 만든 인물 △조계사 대웅전 발견 상량유물 △현재의 조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불교중앙박물관의 대표 유물은 무엇일까? 불교중앙박물관은 국보 1건, 보물 18건 등 총 740여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재는 국보 126호인 석가탑 사리장엄구다. 이는 1966년 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과 함께 이관했다.

또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유물로 주목할만하다. 조선초기 불상과 불감, 복장 유물 등으로 지난해 12월 보물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보물로 지정된 서울 개운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출토 복장유물, 의성 운암사 목조 아미타 불상의 복장 유물인 초조대장경 등이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사찰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전적류나 복장유물의 경우 불교중앙박물관으로 기탁되어 전시와 보존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도심속에 위치한 성보박물관으로 다양한 전시를 마련 대중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석가탑사리장엄구(국보 126호)

**상설·기획전·문화강좌 등 다채
'조계사 창건...'展 9월 15일까지 연장
'사찰에는 누가 살까' 방학프로그램 마련**

소외계층 위한 무료강좌도 마련

초·중·고 학생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불교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2013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사찰에는 누가 살까?'가 8월부터 운영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초·중·고 학생에게 열려있는 교육으로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PPT 강의 후 전시실을 돌며 유물을 직접 감상하면서 실제 내용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체험 교육으로 탐관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8월 3일~9월 8일(8월 31일, 9월 1일 제외) 매주 토·일 오전 10시 30분~12시 진행되며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는 1인당 5000원(10명 이상 단체는 3000원)으로 소외계층에게는 무료 진행된다.

앞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은 일련 스님의 <삼국유사> 등으로 유명한 인각사의 유물전을 11월경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불교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리 불교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알고 싶다면 불교중앙박물관으로 가보자. 그곳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올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한 당시의 시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줄 것이다. 그때에도 지금도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다르지 않았노라고. (02)2011-1960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성보박물관, 불교교육·지역문화 거점”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원학 스님



문화재 보존·중단차원 관심 절실
관장 부임 '동다송' 문화강좌 진행

“불교중앙박물관이 그간 불교계만이 할 수 있는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반해 오히려 중단내부에서 관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70%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계가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원학 스님(사진)은 불교 문화재 보호는 불교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7월 23일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실에서 스님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교문화재 인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학기 <동다송>을 상반기 문화강좌로 진행했다. 불교중앙박물관 자원봉사회 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강좌는 올 하반기 강좌를 마치면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스님은 아쉬움이 많다. 현재 박물관 형편상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소규모로만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은 한국역사문화기념관 내에 충무원 청사와 더불어 공간을 사용하고 있죠. 이리다보니 충무원 청사라고 해야 할지 박물관이라고 해야 할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이름 그대로 불교박물관을 대표하는 공간이 불교중앙박물관인데 그 규모나 활용도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죠. 그러다보니 대중들을 대상으로 정기 강좌를 할 만한 공간이나 다양한 전시공간도 부족해요.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전국의 성보박물관은 총 34개. 하지만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스님은 성보박물관이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보박물관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본사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말사 성보문화재 관리 등을 본사가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 성보박물관이죠. 이렇게 지방 성보박물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중앙 종단의 부담도 훨씬 줄 것입니다.”

스님은 전국의 성보 박물관이 불교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보 박물관은 전시는 물론 불교문화재 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불교문화는 교육을 통해서 재인식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불교문화를 알아야 한국문화를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죠. 자부심을 가지고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보박물관의 현실은 어렵지만 한 걸까? 스님은 예산 미비, 문화재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공인장·박물관·미술관·사적지 등의 관람료에 일정분의 기금을 부가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잖아요. 불교문화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단 차원에서 기금 확보를 통해 성보문화재와 성보박물관을 지원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 학술용역사업을 수주 받아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15년 간 매년 20억 원을 지원받는 장기 프로젝트로 소실 위험이 있는 금석문의 원형 탁본 자료를 체계해 명문을 영구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 사업은 사찰이나 사지뿐 아니라 모든 금석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탁본 사업 이후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사업이죠. 현재 책임연구원과 실무진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했고, 전국 50여 곳의 현장조사를 통해 현 금석문 유물의 보존 상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죠. 이런 사업을 통해 성보박물관의 활동이 활성화 되고 예산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성보박물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정부의 지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원학 스님은 오늘도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원학 스님은 도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불교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0·11대 중앙종회의원과 진주 연화사 주지, 대구 용연사 주지, 조계사 주지, 충무원 문화부장, 충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한여름의 더위도 쉬게하고
잠시 나를 내려 놓아 보자!”

참가대상 여성 30명
참가비 일반인 20만원/ 학생 10만원
일정 4박 5일
8월 14일(수) 오후 4시부터 ~
8월 18일(일) 오전 10시까지
프로그램 108염주 수계, 마음나누기
밭우공양, 다도, 견기명상, 예불
큰스님 법문, 사찰음식체험
108염주 만들기, 사찰예절과 문화
사브라나코지 Design my best life

문의 및 안내 참가신청 <http://goo.gl/6EjEM>
봉녕사(수원) 031.256.4127
스마트봉녕 m.bongnyeongsas.org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어려다운가능)



9월 추석맞이 남녀 방곡탈출 템플스테이 1박2일 9/18(수)~19(목)
10월 나도 가을 떠나 템플스테이 1박2일 10/26(토)~27(일)
11월 화목한 가족만들기 템플스테이 1박2일 11/23(토)~24(일)
12월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템플스테이 1박2일 12/31(화)~1/1(수)



여성만기출가

봉녕사 템플스테이
아름답고 청정한 절

